

## 종양에 의한 성대마비 29예에 대한 임상적 고찰

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 
음성언어의학연구소

김광문, 김영호, 최홍식, 홍원표, 김창규, 권오휘\*

저자들은 1983년 4월부터 1993년 9월까지 10년 6개월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한 종양에 의한 성대마비환자 29예에 대한 임상적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. 1) 종양의 종류별로는 폐암이 13예(44.8%)로 가장 많았으며 갑상선암이 8예(27.6%), 신경성종양이 3예(10.4%), 종격동종양이 2예(6.9%), 그외 경부식도암, 기관지암, 경정맥소체종양이 각각 1예로 나타났다. 2) 나이별 분포는 60대가 10예(34.5%)로 가장 많았으며 성별분포는 남자 18예, 여자 11예로 1.8:1의 비율을 보였다. 3) 환자의 증상으로는 애성만 있는 예가 가장 많았고(17예, 58.6%), 그외 기관내 흡인, 천명, 호흡곤란, 연하곤란, 기침 등의 증상도 나타났다. 4) 좌측이 21예(72.4%), 우측이 5예(17.2%), 양측이 3예(10.4%)였다. 5) 마비성대위치는 부정중위가(paramedian position)가 23예(79.3%)로 가장 많았고 중간위(intermediate position)가 4예(13.8%), 정중위(median position)가 2예(6.9%)의 순을 보였다.